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류태환
6156 / taehwan.ry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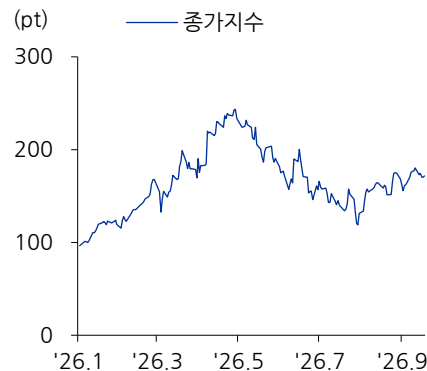
대미투자 관전 포인트

- “ 한·미 대미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당초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연기하고 22일경 결과를 보고하는 일정을 추진 중. 현재 대미 투자 후보로 ① 텍사스 Encinal 6.3GW 가스복합발전, ② 미국 대형원전 최대 8기 및 Westinghouse 지분투자, ③ Alaska LNG 등이 거론. 프로젝트 선정과 함께 국내 건설사의 미국 수주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으나,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기업 참여를 투자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투자 대상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주목할 필요.
- “ **[텍사스 Encinal 가스복합발전]** 총 6.3GW·약 223억달러 규모 프로젝트로, 1.4GW 가스터빈 발전 이후 4.9GW 복합화력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 후보 사업 중 상대적으로 구체화돼 있으나, PPA를 포함한 상업성 구조가 핵심. 이번 발표에서 미국의 전력구매 지원 및 국내 건설사의 EPC 참여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며, 관련 조건이 확보될 경우 후보 사업 중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주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
- “ **[대형원전 8기+Westinghouse 지분투자]** 현재까지 8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지·사업주·Offtaker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개발 일정이 특정되는지가 중요. 또한 Westinghouse는 Brookfield (51%), Cameco(49%)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지분투자와 함께 이사회 참여, 기존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조건 조정, APR1400의 미국시장 진출 등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기존 주주와의 협의가 불가피. 특히 Cameco와의 이해관계 조율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
- “ **[Alaska LNG]** Phase 1 파이프라인 건설은 Worley가 EPC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국내 건설사에는 향후 20MTPA LNG 액화·수출시설이 포함된 Phase 2가 기회 영역. 다만 Phase 1도 아직 사업성 문제로 FID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국의 투자·Offtake 참여가 Phase 1 FID를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 Phase 2 EPC는 Phase 1의 FID 이후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
- “ 일본은 앞서 대미투자로 Ohio 가스발전, BWRX-300 SMR, Pennsylvania·Texas 가스발전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 Ohio 사업은 미·일 기업 21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구체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개발 절차가 진행 중. 프로젝트 발표가 곧 FID나 EPC 발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프로젝트 선정 이후 긴 호흡으로 사업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
- “ 종합하면, 이번 대미투자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① 실제 투자대상 프로젝트, ② PPA·Offtake 등 사업성 확보 방안, ③ 국내 기업의 EPC·기자재 참여, ④ FID까지의 일정으로 요약. 대규모 프로젝트 선정은 국내 건설사의 미국 수주 기대감을 높일 수 있으나, 프로젝트별 사업 성숙도에는 차이가 존재. 결국 투자 규모 자체보다 사업 가시성과 국내 건설사의 참여가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지가 핵심.

업종투자 의견

OVERWEIGHT

코스피 건설 종가 지수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업종별 YTD 수익률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